

1.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품사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 ① 순철이는 학교에서 주최한 ‘일년 동안 책 많이 읽기’ 시합에서 일등을 했다.
- ② 순영이는 바닷가에서 살아서 물 속에서 숨 안 쉬고 오래 참기를 잘 한다.
- ③ 지난 주말에는 온 가족이 ‘봄맞이 함께 걷기’ 대회에 참석했다.
- ④ 우리말에서 정확한 띄어쓰기는 참 어렵다.
- ⑤ 사람이라면 치타보다 빨리 달리기가 쉽지 않다.

2. 국어학자 주시경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국문 전용을 주장한 어문 민족주의자로서 현대 국어 문법의 틀을 마련하였다.
- ② 최초의 국문법 연구서인 『국문정리』를 지었다.
- ③ 1896년 ‘국문동식회’를 독립신문사 내에 결성하였다.
- ④ 임경재, 최두선, 이규방, 장지영 등 여러 제자를 육성하여 그의 사후 ‘조선어 연구회’ 창설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
- ⑤ 국어 운동가로서 표의주의로의 체자(體字) 개혁을 주장하였다.

3. 다음 중 훈민정음 표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음소문자로 만들어진 것임에도 실제로 표기할 때는 음절 문자처럼 사용되었다.
- ② 실사와 허사를 분리하여 적지 않고 이어 적는 연철식 표기법을 택하였다.
- ③ 흘글자들을 병서 또는 연서하는 방식으로 많은 글자들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 ④ 훈민정음 체계 속에는 성조를 표기하기 위한 방점이 포함되어 있다.
- ⑤ 훈민정음 창제 시부터 문장 내에서 띄어쓰기를 하였다.

4. 다음 고사에서 생겨난 사자성어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백이 촉 땅의 성도에서 자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백은 학문에 매진하기 위해 집을 떠나 상의산으로 들어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냈다. 그러나 낭만주의자 이백에게 그런 생활이 마음에 맞았을 리가 없었다. 하루는 학문에 싫증이 나 산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다. 도중에 백발이 성성한 한 할머니가 바위에 도끼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백은 그 할머니의 행동이 이상해 물었다. “할머니,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할머니는 부지런히 도끼를 갈며 말했다. “바늘을 만들려고 도끼를 갈고 있단다.” 이백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예?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어요?” “그렇다.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으면 만들 수 있지.” 이백은 할머니의 인내심과 노력에 크게 감동하여, 발길을 돌려 다시 산으로 향했다. 그 이후 이백은 학문에 정진하여 훗날 두보와 더불어 중국 시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는 유명한 시인이 되었다.

- ① 欲速不達 ② 切齒腐心 ③ 愚公移山
- ④ 附和雷同 ⑤ 磨斧作針

5. 다음 밑줄 친 단어나 구의 사용이 적절한 것은?

- ① 이것으로 인사를 가름합니다.
- ② 그는 이제 담배를 일체 피우지 않습니다.
- ③ 선생님의 이론을 쫓아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 ④ 양지바른 곳에 앉아 햇빛을 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 ⑤ 가능한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 다음 중 괄호 안의 한자어가 적절히 사용된 것은?

- ① 그 아이의 귀는 매우 예민(銳敏)하다.
- ② 그 범인은 자신을 검사로 사칭(私稱)하고 다녔다.
- ③ 그는 모든 군인의 귀감(貴鑑)이 되었다.
- ④ 올해는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削減)되었다.
- 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踏習)하는 것은 옳지 않다.

7.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어문 규범에 맞는 것은?

- 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 손잡이를 호스와 직각 방향으로 돌려 잡고어 주세요.
- ② 불이 붙은 상태에서 취침 또는 외출을 삼가해 주십시오.
- ③ 각 스위치는 뒤쪽을 누르면 원도가 열리고, 앞쪽을 누르면 닫히게 됩니다.
- ④ 후레쉬 촬영 시 눈이 빨갛게 되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 ⑤ 물을 직접 뿌리거나 벤젠이나 알콜 등으로 닦지 마세요.

8. 아래의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의미로 가장 적당한 것은?

다음 날 반찬이 열다섯 가지쯤 되는 여관의 아침상을 받자 두 번째 받는 상인데도 허구한 날 약비나게 그것만 먹었던 것처럼 울컥 비위에 거슬려 왔다.

- ① 너무 지나쳐서 진저리가 날 만큼 싫증이 나게
- ②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이 예사스럽게
- ③ 몹시 먹고 싶었던 듯하게
- ④ 늘상 먹어 왔던 듯하게
- ⑤ 정신 없게

9.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올바른 문장은?

- ① 그는 음식이 나오는데로 먹어 버렸다.
- ② 그녀는 처음 부터 나에게 호감을 보였다.
- ③ 우리는 선후배 사이 이기에 허심탄회하게 지내자.
- ④ 여러분은 올해부터 힘찬 도약의 나래를 펼칩니다.
- ⑤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10. 다음 글의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것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많이 소원해졌다. 맹수의 위협을 받는 일도 없어졌거니와 아름다운 새소리를 접하기도 어려워진 것이다. 그러면 저개발 국가의 경우는 어떨까? 아프리카의 비극적인 상황을 증언하는 책 속에 유명한 일화가 실려 있다. 탄자니아의 한 초등학교에 갔을 때 함께 간 TV 방송국 사람이 도화지와 크레용을 아이들에게 건네 주면서 이렇게 부탁했다. “애들아, 아무거나 좋으니까 동물 그림을 그려 보렴.” 아이들은 처음으로 만져보는 흰 도화지가 신기한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다. 한 시간쯤 후에 선생님께서 “다 그린 사람, 손 들어 보세요.”하며 아이들을 자상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저마다 손에 도화지를 높이 들고 자기들이 그린 그림을 앞다퉈 보여주었다. 하지만 저자는 아이들의 그림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 동물을 그린 아이는 단 두 명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 남자애는 도화지 한쪽 끝에 파리를 그렸다. 또 한 남자애는 아주 가느다란 두 다리를 지닌 새를 그렸다. 동물 그림이라고는 그것뿐이었다. 도대체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물동이나 밥 그릇을 그렸다.

저자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라면 멋진 코끼리나 기린이나 얼룩말을 그릴 거야.” 그러나 아프리카에 동물을 볼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몇몇 보호 구역에서만 동물을 볼 수 있다. 그런 곳 주위에서 살고 있는 아이라면 동물을 보거나 동물에 대해 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데도 아프리카 동물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동물원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그림책도 없기 때문이다.

- ① 두 명의 아이만 동물을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엉뚱한 것을 그렸다.
- ② 저자는 직접 탄자니아 아이들에게 동물 그림을 그려 보게 했다.
- ③ 산업화·도시화로부터 소외된 아이들은 도화지도 신기해 했다.
- ④ 아프리카 아이들이라도 야생 동물을 직접 보기는 어렵다.
- ⑤ 산업화 사회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많이 멀어졌다.

11. 다음 단어를 []와 같이 발음했다면 발음의 원인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 ① 굳이[구지] ② 담력[담녁] ③ 신라[실라]
④ 콧물[콘물] ⑤ 치과[치파]

12. 아래 문장의 밑줄 친 관형절 중 피수식어와의 관계에서 그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 ① 길 가는 친구를 붙잡았다.
② 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은 건강이 썩 좋지 않다.
③ 순희는 어제 고향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④ 그 사람이 결국 실패했다는 사실을 나만 안다.
⑤ 여기서 팔리는 물건은 모두 질이 좋다.

13. 다음 중 두 문장의 의미 관계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갚았다. <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빌렸다.
㉡ 우리 이제 디저트로 커피 한잔 해요. < 우리 방금 밥 먹었잖아요.
㉢ 그의 집을 산 사람은 바로 그의 원수다. < 그의 집은 팔렸다.
㉣ 영희는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다. < 영희는 여자다.
㉤ 나는 동생과 남매지간이다. < 동생은 여자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14. 법률 용어를 순화한 것 중 옳지 못한 것은?

- ① 蒙利者 : 이익에 어두운 자
② 隱秘 : 숨김 또는 몰래 감춤
③ 懈怠하다 : 게을리 하다
④ 溝渠 : 도랑 또는 개골창
⑤ 委棄하다 : 내버려두다

15. 다음 중 아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설명은 어느 것인가?

- 정보 보고서 작성 기본 10원칙
(1) 결론을 먼저 서술
(2) 정보의 조직화와 체계화
(3) 보고서의 형태 이해
(4) 적합한 언어 사용
(5) 단어의 경제적 사용
(6) 생각한 것을 분명하게 표현
(7) 능동적 표현
(8) 자기가 작성한 보고서를 스스로 편집
(9) 정보 사용자의 수요를 분명히 알 것
(10) 동료의 전문 지식과 경험 활용

- ① 정보 사용자는 보고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빨리 알고 싶어하므로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다.
② 보고 내용에 적합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최대한 이해가 가도록 전문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③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선택하며, 자신이 생각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정리한다.
④ 정보 사용자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기술해 나가야 한다.
⑤ 동료들의 조언을 받되 작성자가 수정을 반복해서 최상의 상태라고 판단했을 때 제출한다.

16. 다음 수필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가장 잘 드러난 시조는?

나는 그림은 잘 모른다. 산수화나 수묵화 같은 동양화의 감식안을 갖추지 못한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처지다. 그러나 어느 전시회에서 검정색 하나만을 써서 그린 수묵화 앞에 섰을 때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현란한 컬러 텔레비전으로 오염된 나의 시각에, 아직 마비되지 않은 신경 오라기가 몇 줄 남아 있었을까? 검정색 하나의 그 그림에는 기운이 넘치고, 5색 7색의 찬란한 채색화를 능가하는 그 무엇이 있음을 발견했다. 오래 잊었던 잔잔한 호수의 거울같이 평정한 행복감이 수묵화에서 나에게 다가왔다. 병든 현대인에게는 고유한 마음으로 참다운 자기를 되찾게 하는 수묵화의 행복론이 인생의 내면을 살찌게 해 주는 보약이 되지 않을까? - 신일철, <수묵화 행복론>

- ①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도라 드니/ 산천은 의구히되 인
결은 간디 었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흐노라
② 이고 진 더 늘그니 짐 프러 나를 주오/ 나는 점엿찌니 돌
히라 무거울가/ 늘거도 설웨라커든 짐을 조차 지실가
③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지/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
나마는/ 다정도 병인 양호야 줌뭇 일워 흐노라
④ 추강에 밤이드니 물결이 츄노미라/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미라/ 무심흔 들빔만 싯고 뵈빅 저어오노라
⑤ 동지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여/ 춘풍 니불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님 오신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
리라

17. 다음 밑줄 친 한자의 용법이 다른 하나는?

- ① 學而不思則罔思而不學則殆.
② 古者易子而教之.
③ 君子不鏡於水而鏡於人.
④ 儒以文亂法而俠以武犯禁.
⑤ 君子周而不比小人比而不周.

18. 아래 시는 농가월령가의 일부이다. 아래에 나온 내용은 음력 몇 월을 노래한 것인가?

인가(人家)의 요긴한 일 장 담는 정사로다.
소금을 미리 받아 법대로 담그리라.
고추장 두부장도 맛맛으로 갖추하소.
전산에 비가 개니 살진 향채 캐오리라.
삼주 두릅 고사리며 고비 도랏 어아리를
일분은 엮어 달고 이분은 문혀 먹세.
낙화를 쓸고 앉아 병술로 즐길 적에
산처의 준비함이 가효가 이뿐이라.

- ① 2월 ② 3월 ③ 4월
④ 5월 ⑤ 6월

19.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올바른 것은?

- ① 뻥(bag) ② 숲(shop)
③ 가스(gas) ④ 쥬스(juice)
⑤ 화일(file)

20. 다음 중 한글로 전해지지 않는 시는?

- ① 사미인곡 ② 정읍사 ③ 풍요
④ 누항사 ⑤ 청산별곡